

#### 다. 소화설비의 유지 관리 미흡

당 이재건물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배관내에 이물질이 막혀있어 작동되지 않았고, 수동으로 가압펌프를 작동시켰으나 오히려 배관에 무리한 힘이 가해짐으로써 설비가 파손되고 붕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소화시설의 규정공사나 유지관리의 철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 라. 소방도보상의 장애물 방치.

소방도보상에 인접 신축건물 공사를 위하여 많은 양의 모래가 쌓여 있어 소방차 진입이 곤란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소방도로에 대한 인식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도면 참조 : 별첨 2)

### E 여 고, 화재

#### 화재원인 미상(건물피해액 2천여만원)

##### 1. 일반 사항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동

건물명 : E 여자고등학교

소유자 : 학교법인 E학원

##### 2. 건물 개요

동 건물을 외벽 적벽돌, 내벽 및 천정 풀대회반죽바름, 지붕 목조상 스테이크, 바닥 후로링구조의 연면적 2,346.3  $\text{m}^2$  규모의 3층 건물로서 1923년도에 건축된 후 수차례 대수선을 한 바가 있다.

공공건물 화재 현황 보고

층 별	면 적 (㎡)	용 도
1층	795.3	식당 및 실습실
2층	775.5	여고 실습실
3층	"	"
계	2,346.3	

3. 화재 상황

1975. 5. 12. 20시 46분경 미술전람회 준비중이던 학생 2명이 2층 서양화실에서 미상을 끝내고 20시 50분경 3층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관 창고에 화구를 넣어두고 내려오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고정으로 내려와 보니 3층 308호실 창문으로 불길이 보여 "불이야" 소리를 질렀고, 이를 확인한 경비원이 소방서 신고후 숙직교사 2명과 함께 다시 3층으로 뛰어 올라갔으나 불은 이미 복도 천정까지 번져 있었다. 이들이 학생들과 함께 포말 소화기로 불길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불어온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인근 화실로 옮겨 붙었으며 도착한 소방차 70여대의 진화작업으로 1시간 30분만인 20시 20분경 진화되었다.

4. 피해 상황

이 화재로 3층이 전소하고 2층 천정, 복도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1층은 수침피해를 입었다.

건물피해액 : 19,908,000여 원

보험금액 : 39,816,000 원

보험금 지급액 : 19,908,000 원

## 5. 문제점 및 대책

### 가. 조기경보체제의 불비 및 소화설비 사용지연

최초 화재 목격자인 학생들로부터의 화재발생 경보, 경비원 확인 및 소방서 신고, 숙직교사 통보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소화작업을 시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신속한 경보 및 진화체제의 확립이 아쉬웠다 하겠다.

### 나.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화, 방화구획 미비

건물개요에서와 같이 1923년 건립이후 수차례에 걸쳐 건물외대수선 과정을 거치는 동안 현행 법규에 의한 지붕등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화 및 방화구획 설치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수되어 왔기 때문에 화재피해를 극소화시키지 못했다.